#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바란다

An Opinion for The Korean Architecture Awards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by Kim In-Cheol

손을 들어 선서하건대 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하여 티끌만큼도 개인적인 유감을 갖고 있지 않다. 시작도하기전에 서둘러 선언하는 것은 혹시나 상을 받지 못한 섭섭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협회 편찬과로부터 이에 대한 시론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한사코 사양하였던 것은 후보자였기도 하고 언젠가는 혹시라도 수상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감히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기는 참으로 난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편찬과에서는 내가 올해에 두점을 신청하여 둘 다 현장심사까지 겪었고, 한편으로는 일반공모전의 심사를 맡았던 관계가 있으므로 이 시상제도에 대한 느낌과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마지못해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참으로 거북하다. 쓰기로 한바에야 제대로 하여야 할텐데 이제껏 느슨하게 지내다 보니 공식적인 치렛말을 구사할 줄도 모르게 되었고 완곡하게 말을 꾸며 은근하게 빗대는 예의마저 잊게 되었기에 시상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우선 거북한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아한 것과 함께 거친 애정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상이란 크면 클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어줍잖게 설계를 하고 있는 나도 몇 번인가 상을 받아 보았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으며 주변에서 축하해 주면 우쭐해 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특강 요청을 해 오는 것도 대개 그때이므로 상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 경우가 되면 함께 축하해 주며 '저 친구 한동안 바쁘겠군' 하고 속으로 싱긋이 웃기도 하였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하고 싶은 심리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어서 아마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자신의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 이상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없을 것이다. 한번 받는 것보다 두번 세번 받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작은 것 여러번 보다 큰 것 한 번 받는게 더욱 좋기 마련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오스카상의 시상식을 보면 극적인 연출과 함께 수상자들의 화려한 표정에서(그것이 비록 연기라 할지라도)상이 주는 환희의 절정을 짐작할 수 있다. 노벨상의 수상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온 나라가 나서서 바라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굉장한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확인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건축에 관련된 이런저런 상이 꽤 많다. 기관, 단체, 잡지 등등 상을 주고 싶어하는 곳이 무척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끼리끼리 하는 집안잔치이거나 명분을 내건 홍보행사이거나에 관계없이 여기저기에서 상을 주고 또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상주는 것 자체가 경쟁이 되어 수와 격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방송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벌리는 가요, 드라마, 보도, 다큐멘터리 등의 ○○대상, △△대상을 방송국 수만큼이나 자주 보게 된다. 아무리 대중성을 갖는 분야라고 하여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순서만 조금씩 바뀐 시상내용을 반복해서 보아야하는 것은 고역이

다. 그것이 미안해서인지 사이사이에 볼거리를 끼워놓아 구색을 갖추는 게 그들로서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는 핑계가 된다. 성격도 구분되지 않고, 본질도 분명하지 않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결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상과 △△상이 둘다 존재하기 위하여는 ○○과 △△의 차별성이 우선 설정되어야 하고 그로인한 결과로서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북한 뉴스를 보면 군복전체를 훈장으로 뒤덮다시피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그들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은 군복과 훈장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유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훈장들의 상징과 가치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의미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양철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목숨을 잃을 뻔한 결과로 달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결정된 상의 의미가 수고에 대한 위로인지, 성과에 대한 찬사인지, 가능성에 대한 격려인지를 뚜렷이 하지 않는다면 위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설계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건축을 내세운 이런저런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에 나가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어쩐지 계면쩍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분위기여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편이지만 마냥 그럴 수만도 없다. 그런 경우를 어색해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건축은 창조적 예술」 운운하는 상투어의 반복 때문이다. 연공서열의 순서대로 단상에 오르는 관료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의 첫머리에 한결같이 그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들으면 건축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단의 위와 아래에서의 말이 항상 일치한다면 모르지만 건축, 창조, 예술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그토록 쉽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건축은 쉬운것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풍토에서 건설과 건축을 구분하는 것은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다. 반듯하게 잘 지어지기만 하면 건축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지 않은가?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 쉽게 대우받고 있는 것은 구태여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목메이게 반대해온 건설사의 설계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건축상에 시공자와 건축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어서 전혀 반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지금은 많이 변형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척박한 사회적 환경에서 건축을 위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강조되었던 것과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지금이기는 하여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가치가 변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검증은 언제나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당국과 관련협회와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형 행사에서 건축주에 관련된 시상내용만 유난히 형식적인 것을 보면 쓸데없는 기우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을 받는 실제대상은 설계와 시공이 된다. 추리소설의 전개에서 수사의 시작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쪽을 찾는 것임을 보면 상의 반대급부는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일 뿐 건축주의 경우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명분에 집착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일 것이다.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되었을 때 모순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설계의 입장이라고 하여서 시공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편견을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설계와 시공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만큼 가치의 척도 또한 별개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이중의 가치가 하나를 결정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다. 잘 다듬어진 설계와 잘 마무리된 시공 이상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답답해진다. 그것은 건축의 기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만으로 올림픽의 금메달은 획득되지 않는다. 기본기의 완성에 아직도 연연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을 넘어서는 무엇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며, 예술이자 문화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것은 기술의 몫이 아니라 의지와 감성의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건축과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아껴야 할 단어를 너무 서둘러 시장에 풀어 놓은 것이 아닐까?

각 분야의 여럿이 모여 하는 심사방법 또한 일반상식이상의 결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보편타당함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심사에서의 결과란 응모작의 타이틀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모임에서 과반수의 의사가 채택되는 의사결정 방법은 보편적 합리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역사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이기적인 편의주의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심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명일뿐 그들은 다수라는 또다른 익명에 가려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글의 목적도 아니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대안없는 비판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토론을 위한 문제제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모두 인정한다면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상의 이름을 「한국건설문화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